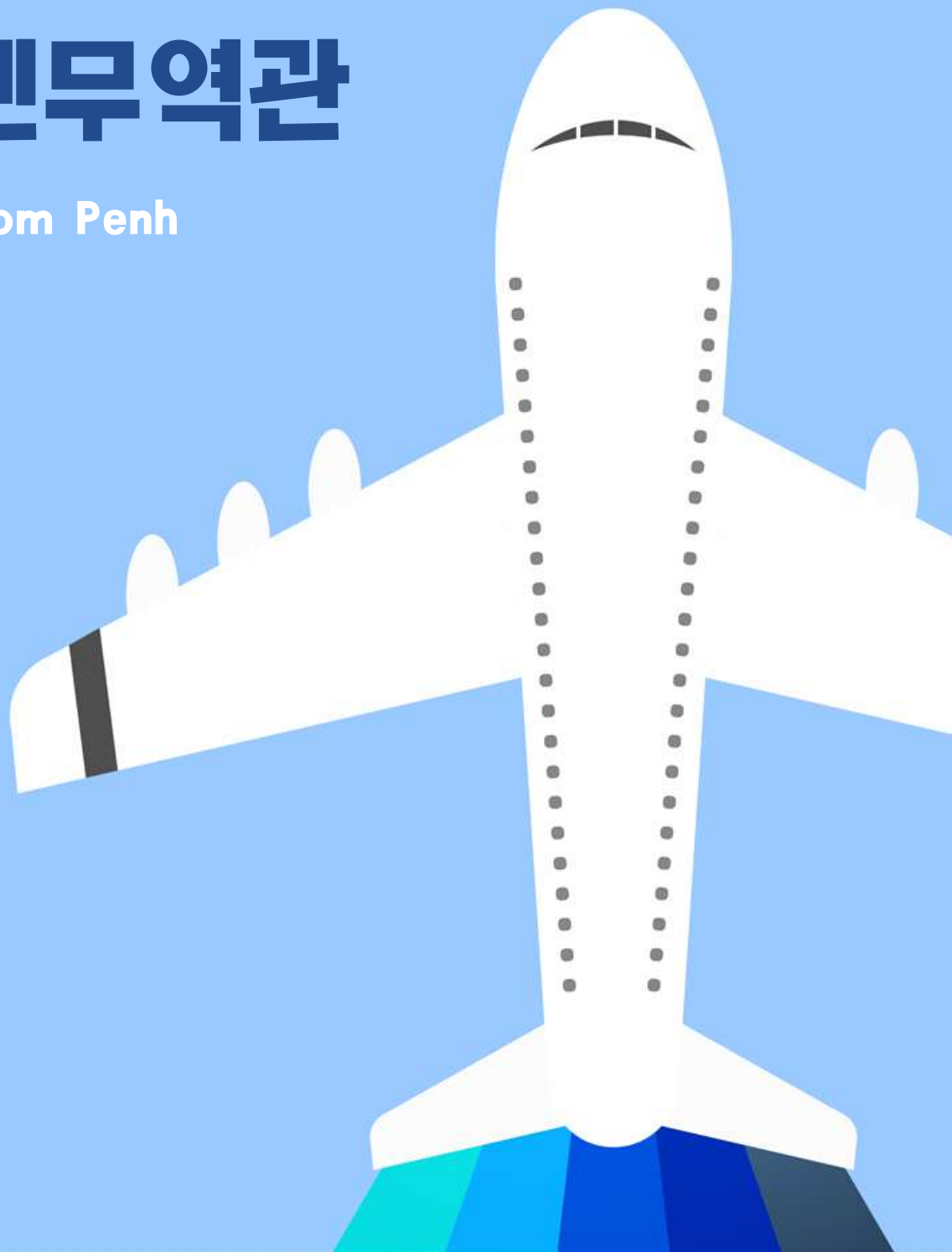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캄보디아 프놈펜무역관

KOTRA Phnom Penh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캄보디아 체류정보	1
II. 캄보디아 개황	7
III. 캄보디아 경제 현황	11
IV. 시장 특성과 바이어 특징	23
V. 프놈펜 관광 안내	27
VI. 현지 주요 연락처	31
VII.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32

I. 캄보디아 체류 정보

1. 입출국 정보

□ 입국 비자 발급 안내

- 일반여권은 비자 필요, 관용·외교관용 여권은 60일간 비자 면제
 -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관광비자, 인터넷 관광비자, 도착비자 재개
- (도착비자) 1개월 관광비자(\$30) 또는 1개월 상용(비즈니스)비자(\$35)를 도착 시 공항에서 가능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증명사진 1매 필요**)
 - 항공 도착 후 에스컬레이터 따라 1층으로 내려오면 좌측에 Visa Application 안내 데스크 있음. 비자 신청서, 여권 및 비용(현금) 제출하면 비자 발급 후 여권에 비자 부착하여 주며, 이후 Immigration으로 이동
 - 관광/상용비자는 모두 유효기간이 30일이나, 관광비자는 1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비즈니스 비자는 3/6/12개월 복수 비자로 연장 가능.
- (대사관비자발급) 출발지 소재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발급
 - 여권 원본 및 여권 사본 1부, 증명사진 1매, 비자발급 수수료, 상용(비즈니스) 비자 신청 시, 초청장
 - 5영업일 소요되며, 관광비자 4만 원, 상용비자 5만 원
- (인터넷 관광비자/E-visa) 인터넷 관광비자는 캄보디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36), 3영업일 정도 소요.

□ 입국 및 통관

- 백신접종 완료자는 격리면제되며,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7일 격리 필요
 - (백신접종 완료자) 백신별 권장 접종 횟수(얀센 1회, 그 외 2회)를 완료한 경우 별도 접종 완료 기간 및 부스터 샷 관련 규정 없음. 입국 시, 영문으로 된 백신접종 증명서 지참

- (백신접종 미완료자)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지참.
캄보디아 정부 지침에 따라 격리호텔로 이동 후 7일간 격리. 격리 비용은 호텔에 따라 상이
- 기내에서 건강설문지,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작성 후 출입국 심사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출입국신고서	세관신고서

- 통관심사는 엄격하지 않으나, 세관 직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작위로 실시(X레이 검사)되며, 의약품·기계·방송장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

2. 체류정보

□ 현지 기후 및 복장

- 열대몬순기후로 연평균 최저 25도~최고 35도로 무더우며, 우기와 건기가 뚜렷이 구분
 - 건기(11월~3월) : 비교적 건조하고 최저 23도~32도 정도로 방문하기 좋은 날씨이나, 비는 거의 오지 않음. 1월이 가장 시원함.
 - 우기(4월~10월) : 오후 중 스콜성 소나기가 거의 매일 내리면서 무더위를 식혀주며 1시간 이내에 개임.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4월에는 최고 기온이 39도에 이름.
- 하복을 주로 착용하나,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 긴팔을 입는 경우도 많음. 공식 행사 외에 넥타이는 거의 착용되지 않음.

□ 통화(USD) 및 결제 수단

- 캄보디아 전역에서 미 달러화가 통용되며, 현지화(Riel)는 1달러 이하 거스름돈으로 주로 쓰임. 원화(W)는 통용되지 않으며, 현지화로의 환전도 쉽지 않음.
 - USD1≒KHR4,100(리엘)이며 통상 100리엘, 500리엘, 1,000리엘 등의 지폐 사용
 - 달러화는 한국에서 미리 환전하여 오는 것이 권장되며, 구권 100달러짜리나 모서리 등이 조금이라도 찢어진 경우 상점에서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함.
 - 중앙은행 미 달러화 소액권(10\$ 이하)에 대한 수수료 부과 정책에 따라, 미 달러화 소액권을 거부하거나 거스름돈을 현지화(리엘)로 주는 경우가 많음

< 캄보디아 현지화(리엘) 지폐 >



- 호텔, 일부 고급식당 및 대형 쇼핑몰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는 곳이 많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소액 카드 결제를 꺼리거나 2~5%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함

□ 교통수단

- 택시
 - 공항 택시의 경우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주간 \$12~15 정액요금(후불)
 - * 프놈펜 공항 입국장 정면에 택시안내부스가 있음
 - 그랩(Grab) 택시(차량호출) 이용할 경우,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는 약 7.5\$~9\$ 소요
 - * Grab : 차량호출/공유 스마트폰 어플, 개인 운영 택시 서비스

○ 툽툽/모토

- 툽툽 : 시내 이동 시 5~8\$ (탑승 전 가격협상 요망)
- 모토(오토바이) : 시내 이동 시 3~5\$ 내외 (저렴하나 안전도 낮음)
- * 그랩(Grab)이나 패스앱(PassApp)으로도 툽툽 이용 가능

<참고> 그랩택시(Grab Taxi) 어플 이용 방법

- ① 'Grab' 어플 검색, 다운로드
 - ② 신규 설치 시 인증번호 등록이 필요 (현지 번호나 로밍 필요)
 - ③ 차량 종류 선택 후 픽업 지점 및 목적지 설정
- (장점) : 미터기로 인한 정확한 요금계산 및 간편하게 목적지 설정 가능

① 'Grab' 어플 설치 및 번호등록 후 차량 선택(툽툽, 승용차, SUV)	② 픽업 지점, 목적지 설정 ※ 공항은 airport phnom penh으로 검색	③ 금액 확인 후 'Book' 버튼 누름

- 일반승용차 : Just Grab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약 7.5\$~8\$)
- SUV : Grab SUV (프놈펜 시내 주요 호텔까지 약 9\$~10\$)
- * (주의) 공항주차비용으로 인해, 출구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다대, 별도 통화로 협상 필요

□ 전기 및 통신수단

○ 전압 : 220V / 50Hz

- 콘센트 규격이 정해지지 않으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모양이 많음.



○ 한국으로의 전화요금은 분당 1\$ 정도이나 호텔은 더 비싼 편임.

- * 단, 현지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경우 훨씬 저렴하게 이용 가능

(예) CellCard 핸드폰의 경우, 177 + 82 + 한국 전화번호 (0.15\$/분)

○ 핸드폰은 SIM 카드 이용 전화방식으로 최저 1~2\$ 정도면 번호 발급 가능(여권 필요). 공항 도착 후 프놈펜 공항에 판매 중인 SIM 카드 구입하여 한국 휴대폰(스마트폰 등)에 삽입하면 현지에서 즉시 이용 가능하고 한국 통신사의 로밍 요금보다 훨씬 경제적임. 속도는 3G가 주류를 이루고, 일부 4G(LTE)를 표방하나, 유선 및 데이터 통신 품질이 한국 대비 50% 수준임.

○ 호텔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와이파이(Wi-Fi)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과부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속도도 괜찮은 수준임.

□ 종교 등

○ 캄보디아 국교는 헌법상 불교이며 인구의 약 95%가 소승불교 신봉

-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원은 캄보디아 국민의 신앙, 교육 및 사회활동 장소의 역할을 함

○ 캄보디아인들은 동남아시아 최대 왕국이었던 크메르인의 후손임에 자부심이 있으나,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민족감정도 있음.

□ 체류 시 유의사항

- 최근 캄보디아의 치안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발생
 - 툽툽, 제복 탑승 시 신호대기 중 휴대전화, 핸드백 날치기, 야간 음주 후 귀가 시 폭행 강도 등 다수 사례 존재
- 야간 외출 및 단체행동, 야간 모토 탑승, 집회·시위·정치적 성격 회의 장소에는 접근 삼가
-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고액권 화폐 과시 삼가
 - 고액권 위조지폐 범죄가 빈번하므로, 위조지폐 여부 확인 요망

□ 풍토병 및 감염질환 등

- 캄보디아에 입국하기 위해 사전에 특별한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입국 후 초기에 음식이나 기후가 달라 장티푸스나 이질에 걸리거나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
- 말라리아는 프놈펜과 같은 큰 도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삼림 지역과 해안가 지역에서 발생
- 캄보디아인의 에이즈 감염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로 매춘을 통해 전염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기타 팁 문화 등

- 식당에서의 팁 문화는 관습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드나드는 고급식당에서 서비스 차지가 없는 경우에는 테이블당 \$1~\$2 정도면 충분함.
- 한국인들이 주로 귀국 시 구매하는 현지 특산품으로는 상황버섯, 노니, 캐슈너트, 후추, 실크제품, 은세공품, 건망고 등이나 품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으니 구매 시 주의

II. 캄보디아 개황

1. 일반 사항

국 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시 차	-2시간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느림)
면 적	181,035km ² 한반도의 약 80%, 남한의 약 1.8배, 베트남의 절반
기 후	고온 다습한 열대몬순 기후 20~40°C의 기온 분포로 3~4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서늘 대체로 5~10월은 우기, 11~4월은 건기
수 도	프놈펜(Phnom Penh)
인 구	약 16,713,015명 : (2022 US CIA World Fact Book) 인구밀도 : 95.6명/km ² (인구증가율 : 2.23%) 성비 : 여성 100명당 남성 105명
화 폐	Riel, CR 또는 KHR(Cambodian Riel)로 표기 경제 전반에 걸쳐 미 달러화 통용
언 어	크메르(Khmer)어
종 교	불교(국교, 97.1%), 무슬림(2%), 기독교(0.3%), 기타(0.5%)
건국(독립)일	1953년 11월 9일(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입헌군주제
국가 원수	국왕: Norodom Sihamoni(국가 원수) 총리: Hun Sen(정부수반/실권자/캄보디아국민당 소속)
입 법 부	양원제(임기 6년의 상원 61석, 임기 5년의 하원 123석)
정 당	CPP(Cambodian People's Party) 집권
국가지도	

2.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실질성장률	%	7.0	7.5	7.1	-3.1	2.2
명목 GDP	십억 달러	22.20	24.59	27.08	25.19	26.19
1인당 명목GDP	달러	1,448	1,587	1,736	1,660	1,653
1인당 GDP(PPP)	달러	4,101	4,467	4,833	4,715	4,967
정부부채	%	30	28.5	28.6	34.3	38.7
실업률	%	0.14	0.13	0.13	0.31	-
소비자물가상승률	%	2.9	2.4	2.0	2.9	3.0
총수출	백만 달러	11,268	12,707	14,824	17,716	17,571
(對韓 수출)	"	261	314	336	318	342
총수입	"	14,289	17,393	20,279	19,296	28,702
(對韓 수입)	"	604	660	697	567	624
무역수지	백만 달러	-3,021	-4,686	-5,455	-1,580	-11,131
외환보유고	"	11,387	13,496	17,155	18,691	16,927
환율(자국통화)	현지국/US\$	4,050	4,051	4,061	4,092	4,074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114.86	123.96	101.84	126.8	-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2,785.73	3,207.59	3,661.93	3,624.64	-

* 주: 총수출입 규모 및 무역수지는 ITC Trade Map 교역상대국 데이터(mirror data) 반영 통계에 대한 수출, 수입 규모를 제외한 2020년은 추정치

* 자료원: IITC 통계(IMF, EIU, OECD 인용), 한국무역협회

□ 경제전망

○ 양자 및 다자 무역협정 통한 무역 투자 기반 확충

- 2022년 1월 RCEP가 캄보디아에서 발효, 2022년 한국-캄보디아 FTA가 한국 국회 비준 이후 발효될 예정이므로 2022년 캄보디아 교역량 증가 예상. 캄보디아-인도 FTA 등 다양한 무역협정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FTA 체결 및 발효에 따라 캄보디아 수출 및 투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실제로 RCEP, 캄보디아-중국 FTA 등을 바탕으로 2022년 1분기 캄보디아 교역액은 전년대비 9.1% 증가한 131억을 기록.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개혁 가속화 노력

- 對캄보디아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립, 투자유망산업 확대 지정, 투자환경 개선을 담은 신 투자법을 2021년 발효하였다. 신 투자법으로 인하여, 유망산업(과학, 기술, 고용, 연구, 혁신, 중소기업) 관련 사업이 촉진되고 對캄보디아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신 투자법 외에도 온라인행정시스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캄보디아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

○ 코로나19 회복 및 뉴노멀 대응 전략

- 높은 백신 접종률(84%, 21년 12월)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리오프닝을 발표하였다. 백신접종완료자 해외 입국 격리 면제 (2021년 12월 기준 아프리카 10개국 제외)를 시작으로 2022년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등 방역지침이 더 완화.
- 2022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대비 125% 증가한 16만 명으로, 베트남/중국 등 인근국 중심으로 관광 재개로 관광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회복. 캄보디아 경제의 약 30%를 차지했던 관광업(코로나19 이전 기준)이 되살아나면서, 캄보디아 경제성장률도 3.0%, 2023년 5.3% 예상

3. 한국-캄보디아 관계

체결 협정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7년 3월 25일 발효)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7년 3월 12일 발효) EDCF 공여 기본 협정 (2001년 4월 10일 발효) 항공협정 (2001년 5월 10일 발효) 행정전산망 구축사업 EDCF 협정 (2001년 11월 8일 발효) 직업훈련원 사업 EDCF 협정 (2002년 6월 5일 발효) 도로 개보수 EDCF 협정 (2002년 11월 6일 발효) 수자원개발 EDCF 협정 (2006년 3월 21일 발효) 문화협력협정 (2006년 8월 24일 발효)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2008년 11월 1일 발효) EDCF 기본약정 서명 및 발효 (2008년 12월 30일 발효) 농업기술 전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9년 5월 30일 발효) 무상원조 기본협정 서명 및 발효 (2009년 6월 4일 발효) 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2009년 11월 29일 발효)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2010년 10월 17일 발효)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협정 (2010년 4월 12일 발효) 한.캄 범죄인인도협정 (2011년 10월 1일) 은행 지급결제 현대화 사업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상표 분야 협력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청년 예비창업가 활성화 양해각서 (2014년 12월 13일 체결) 2019~23년 EDCF 차관 기본약정 (2019년 3월 15일 체결) 마이크로그리드 및 충전소 보급사업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체결)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사업 차관공여계약 (2019년 3월 15일 체결) 투자 증진 협력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발효) 학술 협력 양해각서 (2019년 3월 15일 체결) 형사사법공조조약(2019년 3월 15일 체결) 한-캄 이중과세방지협정(2021년 1월 29일 발효) 한-캄 FTA 협상타결(2021년 2월 3일 타결) 한-캄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2021년 2월 24일 발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표(2022년 1월 1일 발효)
수출입 주종 품목	- 대 캄보디아 수출 : 편직물, 화물자동차, 기타 섬유제품, 음료, 화장품 등 - 대 캄보디아 수입 : 편직제 의류, 직물제 의류, 알루미늄, 천연고무, 유선통신기 부품 등
재 캄보디아 교민	약 15,000명 프놈펜(약 7,500명), 시엠립(약 2,000명), 기타지역(약 500명)

Ⅲ. 캄보디아 경제 현황

1. 경제 동향

□ 주요 부문별 경제 현황

○ 국내총생산(GDP)

- 2005 ~ 2007년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1%의 두 자리 성장을 기록했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6.8% 성장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0.1%의 GDP 성장률을 기록
- 봉제업 수출 증가, 건설프로젝트 증가, 외국인 관광객 확대 등에 힘입어 2011년 이후 7% 넘는 고도성장 기록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성장률 -3.5% 기록. 2021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2022년 경제성장률 회복 기대

<국내총생산(GDP) 변화 추이>

연 도	단 위	2017	2018	2019	2020	2021
GDP	US\$십억	22.20	24.59	27.08	25.19	26.16
1인당 GDP	US\$	1,448	1,587	1,736	1,660	1,653
실질성장률	%	7.0	7.5	7.1	-3.1	2.2

* 자료원 : IMF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과 함께 2007년 10.8%, 2008년 7.5% 등 가파른 물가상승을 보이다가 경제위기 이후인 2009년 -0.7%, 2010년 4.0%를 기록하였고, 2018년 2.4%, 2019년 2.0%, 2020년 2.9% 등을 기록하는 등 경제성장률과 함께 변동성 상존하며 2%대를 유지했으나, 2021년 3% 기록

○ 재정

- 캄보디아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6% 수준을 넘어서나 심각한 수준은 아님
- 캄보디아 정부의 재정수입은 동남아 국가의 평균 2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기존 관세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지만 점차 세수가 증가하고 있음.

○ 환율

- 캄보디아 리엘 화는 19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때 약 40% 평가절하되어 1달러당 3,900리엘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그 후 4,000리엘 수준 유지 중
- 2020년 기준 1달러당 4,000 ~ 4,100리엘 수준으로 기조 유지

2. 경제 관계

□ 캄보디아의 대외 교역 동향

- 국내 제조업 확대 및 다양화, 소득 증대 및 산업 발전으로 인한 국내 수요 지속 증가 등으로 캄보디아의 수출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최초로 교역량 300억 달러를 돌파. 제조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물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은 적자 폭이 87억 불로 확대됨. 캄보디아는 국내 자체 통계 시스템 미흡 및 비공식 교역 등으로 인해 국내 발표 통계와 국제 통계(ITC 상대국 통계 등) 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존재
- 2021년 캄보디아의 수출은 약 143억 달러, 수입은 약 230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적자 폭이 약 111억 달러를 기록

<캄보디아의 대외 교역 동향>

(단위 : USD 백만)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출	11,268	12,707	14,824	17,716	17,571
수입	14,289	17,393	20,279	19,296	28,702
무역수지	-3,021	-4,686	-5,455	-1,580	-11,131

* 자료원 : ITC Trade Map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국 동향>

(단위 : USD 백만, %, %)

순위	국가명	수출액('20)	수출액('21)	증가율	비중('21)
1	미국	5,333	7,490	40.5	42.6
2	중국	1,089	1,510	38.7	8.6
3	일본	1,062	1,093	2.9	6.2
4	캐나다	750	954	27.2	5.4
5	독일	971	880	-9.3	5.0
6	영국	830	731	-11.9	4.2
7	벨기에	482	508	5.3	2.9
8	베트남	387	507	31.0	2.9
9	네덜란드	363	441	21.6	2.5
10	태국	653	360	-44.8	2.1
...					
합계		17,716	17,571	-0.8	100

<캄보디아의 주요 수입국 동향>

(단위 : USD 백만, %, %)

순위	국가명	수입액('20)	수입액('21)	증가율	비중('21)
1	중국	7,098	9,684	36.4	33.7
2	싱가포르	985	5,097	417.0	17.7
3	태국	2,868	3,463	20.7	12.0
4	베트남	2,655	3,143	18.3	10.95
5	대만	754	980	29.9	3.42
6	스위스	544	963	76.9	3.36
7	홍콩	446	724	62.2	2.52
8	일본	651	640	-1.7	2.23
9	인도네시아	665	607	-8.6	2.12
10	대한민국	549	579	5.5	2.02
...					
합계		19,296		48.7	100

<캄보디아의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USD 백만, %, %)

순위	품목명	수출액('20)	수출액('21)	증가율	비중('21)
1	의류(편물제)	5,188	5,819	12.2	33.1
2	의류(편물제 이외)	2,296	2,198	-4.3	12.5
3	가죽제품, 여행용구	1,008	1,581	56.8	9.0
4	신발	1,123	1,392	24.0	7.9
5	전기기기 및 부분품	762	1,081	41.9	6.2
6	가구류	638	872	36.7	5.0
7	차량 및 부분품	559	689	23.3	3.9
8	모피류	200	474	137.4	2.7
9	곡류	471	423	-10.1	2.4
10	고무류	281	422	49.7	2.4

<캄보디아의 주요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USD 백만, %, %)

순위	품목명	수입액('20)	수입액('21)	증가율	비중('20)
1	귀금속류	1,085	5,992	452.2	20.9
2	편물	2,366	2,952	24.7	10.3
3	광물성 연료	1,920	2,402	25.1	8.4
4	차량 및 부품류	1,704	1,967	15.4	6.9
5	기계류 및 부품류	1,224	1,380	12.7	4.8
6	전자기기 및 부품류	1,183	1,190	0.6	4.1
7	플라스틱제품	836	1,164	39.1	4.1
8	합성섬유	896	1,119	24.8	3.9
9	의약품	241	676	180.2	2.4
10	종이류철	522	630	20.5	2.2

□ 한-캄보디아 교역 동향

- '19년 한-캄 교역 규모, 10억 달러 초과, 최대 교역실적 거양
 - 수출량과 수입량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 코로나 여파로 감소. 2021년 한-캄 교역 규모는 9.6억 불 기록
- 수출 품목, 섬유 원부자재에서 생활소비재 및 건설자재 등으로 다변화
 - 과거 한국의 對캄보디아 수출 품목은 주로 투자 진출 봉제 기업의 섬유원부자재(편직물)이었으나, 최근 한국기업의 투자 저하로 편직물의 수입은 감소추세. 또한 그간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알루미늄 시트(Sheet, 캔 음료용)는 태국산으로 일부 대체되어 캄보디아 수입 수요가 감소함.
 -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박카스를 비롯한 음료가 최대 수출품이며, 그 외 주류, 식품, 화장품 등의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증가함.
 - 대 캄보디아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 섬유업체의 완성품 수출이 전체의 83%를 점유하고 기타 알루미늄 스크랩, 에탄올 등이 주요 수입품목. 캄보디아의 주력 수출제품인 농산물의 경우 천연고무, 식물성유지 등이 일부 수출 중.

<對 캄보디아의 수출입 동향>

(단위 : USD 백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1~3월
수출	660	697	567	624	198
수입	314	336	318	342	112
교역량	974	1,033	885	966	310
수지	346	361	249	282	8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對캄보디아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 목 명	2021년		2022년 1~3월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1	경유	-	-	25	-
2	음료	73	-1	24	20
3	편직물	71	7	21	41
4	기타 가죽	48	65	18	81
5	승용차	29	47	12	99
6	기타의 직물	25	82	8	18
7	기타정밀화학제품	9	1,170	8	4,375
8	화물자동차	55	-12	8	-44
9	화장품	23	23	6	2
10	알루미늄조가공품	13	-72	5	-4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對캄보디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D 백만, %)

순위	품 목 명	2021년		2022년 1~3월	
		수입량	증가율	수입량	증가율
1	편직제의류	109	-10	37	18
2	직물제의류	57	19	19	-15
3	신발	54	13	19	26
4	제어용케이블	36	-16	12	8
5	가방	24	14	7	-15
6	천연고무	18	281	6	75
7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10	146	3	107
8	자전거	3	51	1	1,175
9	의류 액세서리	3	8	1	12
10	취미 오락기구	4	-13	1	-15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3. 투자 관계

- 대 캄보디아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1년 감소. GDP의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는 2021년 1~9월 2.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캄보디아 최대 투자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이외의 주요 투자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건설 및 인프라, 제조업, 농업, 관광업 등임.
 - 2020년까지 한국의 대캄보디아 직접투자 누적 금액은 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제조업, 농업, 부동산 등이며, 금융 분야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주요 국가별 대 캄보디아 해외투자신고금액>

(단위 : USD 백만)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년 1~9월
중국	1,426.5	3,064.6	1,775.9	1,134.9	283.6
홍콩	85.4	81.5	912.6	143.8	10.1
대만	23.4	33.4	57.7	109.6	64.9
영국	55.8	14.7	26.3	105.2	-
한국	202.5	14.6	25.1	262.8	-
말레이시아	277.0	43.6	4.5	98.5	0.9
일본	63.5	882.9	298.8	46.5	-
전체	2,615.1	3,122.4	4,442.0	4,751.4	362.2

* 주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신고금액으로 실제 투자 금액과 차이 있음.

* 자료원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ouncil for the Development of Cambodia)

-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는 매년 국가별 QIP 신고금액을 발표하고 있으나, 신고기준이며 캄보디아 기업의 투자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수치로 실 투자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요국의 대캄보디아 해외투자 동향

- 중국의 대캄보디아 해외투자 강세 지속
 - 캄보디아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신고금액은 2008년도 최고금액(108억 달러)을 달성한 이후 매년 투자 프로젝트에 따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추세를 보임.
 - 주요 투자국가 중 중국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가장 많은 금액의 대캄보디아 투자를 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최초로 30억 달러를 돌파하였음.
- 화교권 국가의 대캄보디아 해외투자 금액 높음.
 -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화교권 국가의 투자유입이 많으며, 정치적으로도 친(親)중국화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도 화교권이 큰 영향력을 끼침.
- 일본의 대 캄보디아 투자 건설프로젝트에 따른 규모 변화
 - 2016년은 일본의 이온몰 공사 및 대형 리조트 단지 투자 사업 수행으로 최대 투자국이었으며, 2018년에도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및 호텔 투자를 신고하면서 대캄보디아 해외투자 비중 높아짐.

□ 한국의 대캄보디아 해외투자 동향

- 금융 및 보험업 진출 가속화
 - 낮은 임금과 세금혜택 등 외국인 투자 촉진 정책의 도움으로 성장하던 봉제 제조업은 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비해 생산성 향상이 되지 않으며,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증가
 - 반면 금융업은 높은 예대마진과 외화 거래의 제한이 거의 없는 시장으로 높은 경제 발전도와 더불어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2016년부터 투자금액 크게 증가

<주요 업종별 한국의 대캄보디아 투자동향>

(단위 : USD 백만)

업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 및 보험업	145.4	79.6	212.6	107.8	787.9	398.5
제조업	30.0	27.7	31.2	44.1	10.7	8.9
건설업	11.0	8.3	23.2	33.4	80.1	83.3
농업 임업 어업	11.5	10.0	6.5	6.7	5.5	5.1
부동산업	9.0	4.1	5.0	8.3	26.8	3.1
도매 및 소매업	4.4	1.4	5.5	8.2	9.3	3.1
투자금액 총계	215.2	137.1	290.0	212.6	922.1	505.2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통계

4. 투자 유의사항

□ 낮은 투명성에 유의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0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는 21점으로 180개국 중 160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아세안에서 가장 낮은 순위임.
- 대부분의 인허가 처리에는 법정수수가 명시되어 있지만, 법정수수료만 지불해서는 아무리 서류를 잘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 어려우며, 서류에 결재하는 사람 모두에게 일종의 비공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부정부패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판단은 매우 미약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는 반 부정부패법 제정에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해오다 2010년 부정부패 방지법이 탄생하고 부패 방지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아직 효과는 미약함.
- 통관, 세무, 인허가, 여권 발급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 크고 작은 모든 정부의 행정절차에서 비공식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회 전반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는 캄보디아 경제·사회적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정보 수집 노력

- 캄보디아에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움. 정부는 정확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발표에 있어 여력이 부족하여, 속도가 늦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임.
-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필요한 정보는 직접 업체나 현장을 방문해서 수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며, 전문 조사기관이나 연구기관도 거의 없는 실정임.
- 캄보디아의 공식 통계자료는 자체적인 조사보다는 Worldbank, ADB등 양/다자원조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조금씩 통계자료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음.
- 마케팅조사 전문업체가 있지만 조사 수수료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 현장에는 무수하게 다양한 소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이나 조사자에 따라 다른 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여러 채널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이 필요.

□ 인프라 미비

-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도로, 철도, 항공 등 운송 수단이 취약하고 유선 통신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부분은 무선통신망에 의존하지만 무선통신망도 잘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통신망의 경우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유선 통신망 구축이 미흡하여 대부분은 무선통신망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음영지역이 있을 수 있음.
- 전력 또한 공급능력이 부족하여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이며, 인근 국가(태국, 라오스, 베트남)로부터의 수입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수력, 화력발전소의 막대한 투자로 캄보디아 전력 현황이 좋아지고 있으며, 자가 발전량도 증가하고 있음. 다만 아직도 전력 현황은 불안한 상태이고, 발전 및 공급량 대비 누전량이 많은 상태임.

-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취약하여 신속하고 친절な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대부분 수기로 서류가 작성되는 경우도 많아서 넉넉히 시간을 두어야 시한을 맞출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대부분의 인프라가 미비하여 물류비, 전기세, 통신비 등 제반 비용이 베트남과 태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임.

□ 전문 인력의 확보

-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외국에서 유학한 인력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기능이나 기술 수준이 높은 다양한 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어려워, 소수 고급 인력은 급여 수준에 따라 이직이 잦음.
- 필요한 전문 인력의 조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국이나, 베트남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임.
- 현지에서 자체적인 인력을 양성하거나, 파견 교육을 통한 전문 교육 이후 현지에서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개인의 역할과 신뢰성

- 공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특성상 소위 고위층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아무리 신뢰성이 있는 중개인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여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함.
-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권력자와 인척 관계이거나 권력자와 업무적으로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공식적으로는 업무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적인 착취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발생함.

- 중개인을 통하여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직접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인허가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개인을 통하여 고위층의 내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무적인 절차는 모두 거쳐야 하므로 해당 부처와 직접 접촉해두는 것이 바람직함.

IV. 캄보디아 시장 특성과 바이어 특징

□ 캄보디아 인구

- 캄보디아의 인구는 2022년도 기준 약 1,671만 명을 돌파한 이후 계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젊은 국가(평균 나이 27세)로 매우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나라임.
- 소비시장에 젊은 층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됨. 젊은 층의 소비력 향상으로 경제발전이 촉진되고 소비시장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 캄보디아는 작은 시장이지만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빠르고 고객의 호기심이 높지만,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낮고 상품 수명 주기가 짧은 편. 최근 이러한 특성과 맞물려 대형 쇼핑몰, 온라인 유통이 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

□ 캄보디아 문화

- 캄보디아는 고대부터 힌두교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역사, 설화, 건축물에 그 문화가 반영되어 있음. 향후 화교들이 자리를 잡아 상권을 장악하면서 중국 문화도 일반화 되어 있으며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캄보디아인은 대부분 중국계인 경우가 많음.
- 보수적인 캄보디아인들의 특성상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제품 유통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 성인용품 및 사행성 제품 등과 같이 민감한 품목을 수출 또는 유통할 경우 면밀한 시장조사 및 인허가 검토가 필요함.

□ 캄보디아 인프라

- 킬링필드 이후 그나마 존재했던 인프라마저 파괴된 캄보디아는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등 기초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 하지만 현재 양·다자간 원조기구의 원조와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인프라 관련 투자로 인하여 개선되고 있음. 또한 정부가 행정 시스템 및 법제도 개선,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

□ 캄보디아 제조업

- 2010년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중국 내의 봉제 기업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전하였고, 특히 저렴한 인건비의 캄보디아로 이전을 많이 하였음. 하지만 이후 빈번한 노동분쟁과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봉제업의 신규 투자는 감소하였음. 2018년 이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다시 캄보디아로 진출을 모색하는 중국 진출 기업 및 중국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캄보디아는 인근 국가(태국, 베트남, 중국)에 비해 제조 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일반 소비재, 생활필수품, 식품 등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마트에서 Made in Cambodia 공산품은 거의 보기 힘들고 금속가공 등 중화학 처리기술이 전무하며, 플라스틱 사출 기술 같은 기초적인 산업기술마저 도입이 안된 상태로, 기초적인 일용품마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임.
- 다수의 캄보디아 사업가들은 작은 내수 시장 규모 등의 이유로 제조업 개발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인근 국가와의 무역(수입)을 통한 부의 축적에 더 많은 관심이 있음.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발 부동산 투자 열기로 인해 프놈펜, 시하누크빌 등의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하면서 갈수록 제조업 투자에 대한 관심 형성이 힘든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경향으로 자칫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인한 리스크 현실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음.

□ 對 한국 이미지

- 일반적으로 ‘한국 = 선진국, 한국 상품 = 높은 가격, 좋은 품질’의 이미지가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캄보디아 시장은 품질보다 저렴한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미지가 진출에 방해가 되기도 함. 따라서 제품에 따라 고급화 전략을 준비하는 마케팅도 필요함.
- 한국은 ‘캄보디아에 원조해 주는 잘 사는 나라’, 자국민 5만 명이 노동자로 파견되어 ‘현지 월 급여의 6~7배를 벌 수 있는 나라’ 등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과거 캄보디아 왕의 북한과의 친분과는 달리 일반 국민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캄보디아는 한류가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음. 특정 유명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즌에는 한류의 영향을 받으나, 드라마가 종영되면 다시 분위기가 침체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단순히 한류마케팅으로만 시장에 접근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음.

□ 바이어 특징

- 한국산을 찾는 바이어들은 주로 중고품 및 재고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음. 신제품(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산)의 금액과 한국 중고제품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여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한국과의 직접 거래 경험이 적은 경우, 혹은 주문 물량이 적을 경우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제3국을 통한 수입을 하는 바이어도 있음.
- 첫 가격 리스트 송부 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나 무리한 결제 조건을 요구하여 어려운 거래라는 인식을 주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음.

- 캄보디아 바이어들은 즉흥적으로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교신 초기단계부터 구매를 할 것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많음.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거래를 위한 교신이 진행되지만 중간에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변심하는 경우는 타인에게 사과를 잘하지 못하는 문화적 특성상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 미팅 시 유의사항

- 바이어 면담 시 Mr. 나 Ms. 혹은 Dr. 등의 경칭을 붙이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태국, 베트남, 미얀마 등 주변국에 수출하고 있다면 꼭 강조하여 캄보디아에서도 충분히 시장성이 있음을 어필하고,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함.
- 사후 이메일 교신 시,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메일을 보내고 난 후 꼭 전화로 메일 열람 여부를 확인해야 신속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음. 또한 최근 들어 이메일보다는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연락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V. 프놈펜 관광 안내

1. 주요 관광지

□ 왕궁(Royal Palace)

왕궁은 현재 재위 중인 시하모니 국왕이 거주중이며, 캄보디아 건축양식이 잘 나타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임. 1866년 세워진 왕궁의 본전 건물은 힌두교와 불교의 설화를 담고 있으며, 바로 앞에는 1861년 나폴레옹 3세가 기증한 프랑스식 건물과 왕궁 사무소가 있음. 시소왓 왕(1904~ 1927년 재위)에 의하여 건립된 본전은 앙코르 톰의 바이욘 사원을 모방하여 만든 59m의 탑이 장식되어 있으며, 대관식이나 외교사절 접견 등의 의례에 사용됨



□ 실버 파고다(Silver Pagoda)

왕궁 안에 자리한 실버 파고다 사원은 우리식 왕사로서 매우 아름다운 건축물임. 실버 파고다의 이름은 사원 중앙 바닥이 은제 타일(하나당 1.1kg)로 깔려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며, 총 무게는 5,809kg임. 파고다의 내부에는 금으로 만든 대좌 위에 에메랄드 부처(Baccarat Crystal)와 9,584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90kg의 금부처가 있으며, 제일 큰 다이아몬드는 25캐럿이라고 함. 이곳의 불교사원에는 많은 탑이 있는데, 실버 파고다 마당의 탑은 현 시하모니 국왕의 조상이나 시하누크 전 국왕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것임



□ 독립 기념탑

수도 중심부인 시하누크 거리와 노르돔 거리가 교차하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형적인 앙코르 양식의 건축물임. 1953년 11월 9일 프랑스로부터 완전 독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탑은 1958년에 완공되었으며, 캄보디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명령들을 위한 위령탑으로도 사용됨. 지방의 각 도청소재지는 이와 비슷한 독립기념탑을 도시 중심에 세움



□ 왓 프놈(Wat Phnom)

왓 프놈은 ‘산위의 사원’이란 뜻(Wat은 사원이고, Phnom은 산)으로 Penh이라는 보살이 메콩강에 떠내려가는 여의주를 발견하여, 이 여의주를 모시기 위해 왓 프놈 사원을 세웠다는 전설이 내려옴. 여기에서 프놈펜(Phnom Penh)이라는 지명도 유래됨



□ 톨슬랭 박물관(Tuol Sleng)

톨슬랭 인종 학살 박물관은 크메르루주 정권의 고문장소로서 고등학교를 개조하여 만들었으며, 당시에는 S-21감옥소로 불림. 이곳을 거쳐 간 1만 4천여 명 중 생존자가 단지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른바 ‘살인공장’으로 알려져 있음. S-21감옥소는 1979년 크메르루주가 반 크메르루주 저항군-베트남군 간 연합 세력에 의해 태국 국경지역으로 쫓겨난 이듬해인 1980년부터 톨슬랭 인종 학살 박물관이란 이름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됨.

□ 킬링필드(Killing Fields)

킬링필드는 톨슬랭에서 고문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살상된 장소로서 통상 톨슬랭에서 고문과정이 끝나면 수용자들은 저녁에 눈가리개를 하고 손발이 묶인 채, 트럭으로 이곳에 실려와 무참히 살해됨. 킬링필드에서 희생된 사람은 약 16,000명 정도이고, 현재 두개골 8,000여 개를 수습해 위령탑을 세우고 희생자의 넋을 위로함.

2. 현지식당

구분	식당명	전화번호	위치	영업시간	비고
현지식당	말리스 (Malis)	+855-23-221-022	프놈펜	06:00-22:00	- 메뉴당 \$5~\$25 - 퓨전식 캄보디아 음식 (Seafood, Asean 음식) - 고급스러운 캄보디아 분위기
	롬땡 (Romdeng)	+855-92-219-565	프놈펜	11:00-23:00	- 메뉴당 \$5~\$10 - 캄보디아 음식 - 관강식당 - NGO 운영 식당 - 캄보디아 유명 음식인 '아뻥(거미 튀김)' 판매
	크메르수린 (Khmer Surin)	+855-12-887-320	프놈펜	10:00-22:00	- 애피타이저 및 메인 메뉴 \$4~\$10 - 디저트류 \$2~\$6 - 벵깡공 1에 위치 - 1966년부터 영업하고 있는 캄보디아 음식 위주 식당
	원모어레스토랑 (One More Restaurant)	+855-23-888-222	프놈펜	06:00-22:00	- 메뉴당 \$5~\$10 - 전통 캄보디아 음식 판매
중식당	이상 (Yi Sang)	+855-16-320-808	프놈펜	06:00-22:30	- 딤섬류 \$3~\$5 - 식사류 \$3~\$7 - 요리류 \$10~\$100 - Chinese, Asean 음식 판매 - Dimsum(점심시간한정) 판매 - 고급 Seafood 판매
	잔리앙 (Zhan Liang)	+855-23-936-860	프놈펜	11:30-14:00 / 17:30-21:00	- Rosewood 호텔 운영 - 딤섬 등 중식
	푸루주 (Fu Lu Zu)	+855-23-999-200	프놈펜	06:30-10:30 / 11:30-14:30 / 18:00-22:00	- Chinese 사천 음식 판매 - 평일(11:30-14:30), 주말(10:30-14:30) 딤섬 뷔페 판매

구분	식당명	전화번호	위치	영업시간	비고
한식당	르서울 (Le Seoul)	+855-23-427-000	프놈펜	10:00-22:00	- 식사류: \$6~\$10 - 고기/요리류: \$10~\$25 - 소고기 BBQ, 전골류 판매 -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한식당
	대장금 (Dae Jang Kum Restuarant)	+855-12-750-147 (1호점)	프놈펜	10:00-22:00	- 식사류: \$7~\$10 - 고기/요리류: \$10~\$25 - 소고기 BBQ, 전골류 판매 - 기타 한식 판매 - 2호점(뚝깍 지점) 번호: +855-12-576-147
	신라(Silla)	+855-86-215-000	프놈펜	10:00-14:00/ 17:00-22:00	- 식사류: \$10~\$15 - 고기/요리류: \$10~\$25 - 소고기 전문 식당
	식객 (Sikgaek Korean Restaurant)	+855-12-843-023	프놈펜	10:00-14:00/ 17:00-22:00	- 식사류: \$10~\$15 - 고기/요리류: \$10~\$25 - 소고기 전문 식당 - 기타 한식 판매
	자루 (Jaru Korean Restaurant)	+855-12-450-902	프놈펜	10:30-22:00	- \$5~\$20 - 다양한 한식 판매 - 퓨전 한식 판매 -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식당
	도새기 (Dosegi korean BBQ)	+855-17-890-618	프놈펜	11:00-24:00	- \$10~\$30 - 보쌈 족발 감자탕 등 한식 판매
	본가 (Bornga)	+855-77-890-033	프놈펜	11:00-22:00	- 고기류: \$12~\$15

VI. 주요 연락처

□ 긴급연락처

- 경찰 : 117/118 프놈펜 : 097-77-80002
 - 외국인을 위한 24시간 운영 현지 경찰 핫라인 031-201-2345
 - Whats App 어플 계정 : (855) (0)31-201-2345(전화번호로 검색)
 - E-mail : fad-info@police.gov.kh

- 소방서 : 118 또는 012-786-693

- 의료기관
 - 헤브론 병원(한국어 사용 가능) : 012-436-124, 주소 : Phum Prey Salar Sangkat Kakab, Khan Dangkor,(프놈펜 공항 맞은편)
 - 제일병원(First Center Clinic, 한국어 사용 가능) : 092-911-911, 주소 : No.364-366, Preah Monivong, Phnom Penh
 - Raffles SOS hospital : 012-816-911, #161, Street 51(Pasteur) Sangkat Boeung Raing Khan Daun Penh 12211

- 한국대사관 : 023-211-900/3, cambodia@mofa.go.kr
 - 근무시간(08:30~17:00)외 긴급시 비상연락처 : 당직휴대폰 092-555-235 (당직자가 자택에서 비상전화 대기)

- 재캄보디아 한인회
 - 023-964-160(주중 08:30~17:00), 안전담당 : 012-836-152, 088-6011-810

- KOICA(한국국제협력단) - 전화번호 : 023-964-150/1

- KOTRA 프놈펜 무역관 - 전화번호 : 023-999-099
 - 이메일 : kotrapnh@kotra.or.kr

VI. 청탁금지법 준수안내

해외에서의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안녕하세요? 고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KOTRA입니다.

지난 9.28일부터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 법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도 적용되므로, 해외에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KOTRA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고객님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KOTRA 청탁방지담당관 올림

해외 출장 시 기강 문란 행위는 국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강 문란 행위 : 통역 등에 성희롱, 지나친 음주, 유흥업소 출입, 도박 등**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